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1. 7. 20(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이철우 경북도지사, ‘영남권 대통합’ 정책방향 제시 - 미래발전포럼, ① 행정통합 ② 에너지 정책 ③ 지방소멸 등 정책 토론 - 미래발전협의회, 초광역 협력 등 지역 균형발전 공동협약서 체결	정책기획관	
②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제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조건부 가결 - 2030년 청도 군기본계획 재수립... 조건부 가결 - 구미 괴평·송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조건부 가결	도시계획과	
③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 -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환경정책과	
④ 코로나19 시대 힐링 명소, ‘송정산 산책로’ 공간 조성 - 경상북도문경시, ‘송정산 산책로’ 준공식 개최 -	산림산업관광과	
⑤ 경북도 육성 복숭아 품종 ‘홍백’ 동남아에 첫선 - 경북농업기술원, 복숭아 신품종 ‘홍백’ 홍콩, 싱가포르에 시범수출 - ‘홍백’ 과즙 풍부하고 당도 높아, 외국 소비자 입맛 사로잡을 백도 품종	청도복숭아 연구소	
⑥ 경북도 휴가철 도내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점검 나서 - 9월 17일까지, 300여 곳 야영장 시·군 합동 특별점검	맑은물정책과	
⑦ 인삼 씨받기 제때 해야 개갑률 높아 - 인삼농사는 종자 관리부터, 인삼 종자 채종과 개갑장 관리 철저 당부	풍기인삼 연구소	
⑧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업무 지시 의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대책 수립 지시	자치경찰 정책과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1. 7. 20(화)】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실			
		작성 자	기 획 관	최 혁 준		
			팀 장	허윤홍	주 무 관	김경재
		연 락 처	054-880-2138			

이철우 경북도지사, ‘영남권 대통합’ 정책방향 제시

- 미래발전포럼, ① 행정통합 ② 에너지 정책 ③ 지방소멸 등 정책 토론 -
- 미래발전협의회, 초광역 협력 등 지역 균형발전 공동협약서 체결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 영남미래포럼’과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영남권 5개 시도지사 모임)에 참석해 영남권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과 상생 번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새 중심으로!’란 주제로 개최된 ‘2021 영남미래포럼’은 김사열 대통령소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좌장으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포럼에서 이 지사는 통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70년대의 서울로 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인구와 경제, 문화, 교육 등 수도권 초집중으로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금의 행정체제로는 지방은 답이 없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다”라고 주장하고 “절박함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8개월간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여 우선 “대중교통 환승제 확대, 광역철도 순환망 확충 등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3대 현안 추진으로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줄

여 나가고,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관광 등 기능을 통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중이다”며 통합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영남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헌법 개정에도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언했다.

원전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올 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한파로 인한 전력공급 우려가 다시 이번 여름 최악의 폭염 예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만약 당초 계획대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했다면 전력 공급 차질 우려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운영허가가 난 것은 다행이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원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경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청정 및 수소에너지, 미래원자력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그린경제 대전환을 선언하고 실천 중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4차 산업시대의 전력수요와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다”면서 정부의 에너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하여 “인구정책은 지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지난해부터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매년 지방의 청년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져 인구정책의 한계와 전환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 차원에서 “청년정책관실 신설, 경북인포럼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도시와 농촌 두 지역살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과 같은 경제, 교통, 교육, 문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초광역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개최된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 ▷그린·디지털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선도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국가차원의 지원 등 5개항의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첫 회의에서 제안하여 추진해 온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3대 현안 과제를 대한 용역 중간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영남권 종합발전계획에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아시아의 거점 도시, Y-Mega City’를 비전으로 경제·산업, 교통·물류, 환경·안전, 문화·관광 등 6개 분야에 93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에는 ‘영남권 거점도시간 1시간 생활권’을 비전으로 미래교통체계 구축 전략이 ▷안전한 물 관리 체계에는 ‘대구-경북-울산권 상수원 다변화’, ‘부산-경남권 상수원 다변화’ 사업 등이 ▷낙동강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에는 ‘하나된 영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신관광지대’라는 비전으로 ‘영남권 대표(Y-Signature)’그랜드 투어를 재창조한다는 전략이 포함돼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은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GAD)통해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사회·경제·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서 선진국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주관 2021 영남미래포럼 계획(안)

□ 포럼개요

- 일 시 : 2021. 7. 20.(화) 14:00 ~ 16:20 * 복장 : 정장+타이
 - 장 소 : 울산 전시컨벤션센터(3층)
 - *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 전화) 052-255-1800
 - 주 제 : “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새 중심으로!”
 - 참 석 : 80여명 * 영상축사 :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안부장관
 - (주요내빈) 변재운 사장
 - (토 론 자) 6명(좌장 1, 패널 5)
 - 좌장 : 김사열 대통령소속국가균형발전위원장
 - 패널 :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 ※ 영남권 전역 KBS1 방영 : 7. 21.(수) 19:40 ~ 20:30분(50분간)

□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분장·환담	13:10~14:00 50'	▶ 분장실(201A) → VIP대기실(3층)	
개 막 식	14:00~14: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아나운서
	14:05~14:15 10'	▶ 개회사(변재운 사장), 인사말(송철호 울산시장) ▶ 영상축사(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안부장관)	
토 론 (주제토론)	14:40~16:00 80'	▶ <u>모두발언 : 좌장</u> (포럼 취지, 패널 소개)	좌장 진행
		▶ <u>주제토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패널 : 영남권 5개 시도지사 - 시도별 3개 질문 : 원전정책, 행정통합, 지방소멸 등 15개 	
		▶ <u>마무리 발언</u> : (2분)	

제2회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 계획 (안)

□ 포럼개요

○ 일 시 : 2021. 7. 20.(화) 16:30 ~ 17:30 * 복장 : 정장+타이

○ 장 소 : 울산 전시컨벤션센터(1층)

※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 전화) 052-255-1800

○ 참 석 : 6명

-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임진혁 울산연구원장

○ 주요내용

-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 채택
-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중간보고 등

※ 공동연구(1) : 영남권 발전방안, 현안과제(3) : 물관리, 낙동강관광벨트, 광역교통망

□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정리·이동	16:10~16:30 20'	▶ 3층 행사장 → 1층 VIP대기실	
개 회	16:30~16:33 3'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6:33~16:45 2'	▶ 환영사 (울산시장)	
안전토론	16:45~17:30 47'	▶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시도지사)	
		▶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중간보고 - 주재 : 회장 (울산시장) - 보고 : 울산연구원 (권태목)	
		▶ 차기회장 선임 및 소감 말씀 - 차기회장 : 경남도지사 (윤번/임기1년)	
		▶ 마무리 발언 (시도지사)	
		▶ 폐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7.20(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작성 자	과 장	장 상 열		
			사무관	도영호	주무관	조훈석
		연 락 처	054-880-3918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제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조건부 가결**

- 2030년 청도 군기본계획 재수립... 조건부 가결 -
- 구미 괴평·송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조건부 가결 -

경상북도는 지난 16일 ‘2021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제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제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은 지난 ‘19.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경북도가 향후 20년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경북 발전 종합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내실 있는 발전 전략 마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넥스트 노멀 산업 발전전략 마련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한 장기적·거시적 발전방향 정립 등이다.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부터 23개 시군 순회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가의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도 종합계획이 시군 종합계획 방향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실정에 맞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번 도 종합계획은 향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2030년 청도 군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상 최상위 군기본계획으로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목표연도 2030년 청도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 계획(2020) 인구목표 6만 명에서 4만 7000명(2030)으로 감소했고,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2지역중심·5지구중심으로 조정하여 도시기능 생활권 배분과 장기적 관점의 성장거점 전략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른 토지의 개발과 보전, 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난 심의 때 제기된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계획 등’ 추가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번 군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해 조건부로 가결했다.

‘구미 괴평·송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미개발 주거용지(232천㎡)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계획인구 4000명을 수용하는 안이다.

위원회는 도로 추가 확보 및 주차장 이용 등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도 종합계획이 최종 승인되면 앞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우리도가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으로 대응하여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군기본계획은 실현가능한 토지이용계획 등 목표설정 분야를 세부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도시개발사업도 현재 분양상태와 장래 주거수요 등을 면밀히 살펴 차질 없는 토지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7.20(화)】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권 경 수			
			사무관	신 용	주무관	손명희	
		연 락 처	054-880-3528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

-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상북도는 7월 20일 오후 2시 도청 화랑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장기 전략을 마련해 탄소 중립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1년 6월부터 ‘22년 4월까지 본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발주한 경상북도,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착수보고와 자문, 향후 용역 진행방향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분석 ▷ 경북의 기후변화 여건 분석 ▷ 기존 대책의 성과 및 평가 ▷ 2050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목표 수립 ▷ 온실가스 감축 계획 ▷ 이행관리 방안 ▷ 탄소중립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용역 착수로 경북도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이어 이행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 우리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해 탄소 중립에 대응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참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 ▶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과업 착수보고회 개최

□ 개 요

- 일 시 : 2021. 7. 20.(화) 14:00
- 장 소 : 경북도청 화랑실(254호)
- 참석대상 : 도, 대구경북연구원(용역사), 자문위원, 도 관련부서
- 내 용 : 용역 착수보고 및 자문, 의견수렴 등

□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 회	
14:05~14:10	5′	인사말씀	환경정책과장
14:10~14:30	20′	착수보고	대구경북연구원
14:30~15:00	30′	자문 및 토론	
15:00		폐 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1.6.22. ~ 2022.4.21.(10개월)
- 용역금액 : 금151,790,000원
- 수행기관 : 대구경북연구원(책임연구원 남광현)
- 계획기간 : 2022 ~ 2031(10년간)
- 과업내용 : 2050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목표 및 전략 수립,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이행관리, 개선방안 등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7. 20(화)】	담당부서	산림산업관광과			
		작성 자	과 장	이재훈		
			사무관	임일규	주무관	이혁규
		연 락 처	054-880-3629			

코로나19 시대 힐링 명소, ‘송정산 산책로’ 공간 조성

- 경상북도·문경시, ‘송정산 산책로’ 준공식 개최 -

경상북도는 7월 20일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송정산 일원에서 문경시가 조성한 「송정산 산책로」 준공식을 개최 했다.

이 날 행사는 고윤환 문경시장, 고우현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현판 제막 및 시설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송정산은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일원에 위치하며 문경시를 가로지르는 영강과 접해 있고 주변 경관이 뛰어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힐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 2020. 12월 문경시 제2차 지명위원회 의결에 따라 송정산으로 지명이 확정되었다.

송정산 산책로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23억 원을 투입해 산책로 380m를 조성하고, 인공폭포·전망정자·야간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힐링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숲길 1163개소, 5484km를 조성·관리 중 이며, 올해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다양하고 쾌적한 숲길’을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문경시 등 11개 시군, 12개소에 84km를 조성하고 있다.

이재훈 경상북도 산림산업관광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출 자제 및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특색 있고 아름다운 숲길을 지속해서 조성 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7. 20(화)】	담당부서	청도복숭아연구소				
		작 성 자	소 장	박원흠			
			실 장	정경미	담당자	이지윤	
		연 락 처	054-373-5486				

경북도 육성 복숭아 품종 ‘홍백’ 동남아에 첫선

- 경북농업기술원, 복숭아 신품종 ‘홍백’ 홍콩, 싱가포르에 시범수출 -
- ‘홍백’ 과즙 풍부하고 당도 높아, 외국 소비자 입맛 사로잡을 백도 품종 -

경북농업기술원은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육성한 신품종 ‘홍백’을 홍콩,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해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7월 20일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열린 수출식에는 신용습 경북농업기술원장, 권택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최민용 청도복숭아연구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범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육성한 복숭아 신품종에 대한 해외 시장의 반응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남아로 시범 수출하는 복숭아 ‘홍백’은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육성된 백도 품종으로 2018년에 품종보호등록이 되었고 2019년부터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해 현재 27ha정도 보급됐다.

홍백 품종의 숙기는 7월 중·하순으로 꽃가루가 있어 결실이 잘 되며 과중은 305g 정도이고 당도는 12.7브릭스이다. 속이 붉어 ‘홍백’으로 이름 지어졌으며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아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 소비자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백’의 동남아 시범수출 물량은 480kg 규모로 7월 15일에 1차로 홍콩, 20일에 2차로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수출이 진행된다. 동남아 현지 시장테스트를 통해 우리 품종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특히 유통과정의 저장성과 품질 변화를 점검하고 당도, 식감, 가격 등 제품 자체에 대한 현지 반응과 경쟁력 평가를 받아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용습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최근 복숭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복숭아 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앞으로도 경북 복숭아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복숭아 신품종(홍백) 시범수출 기념식 및 현장평가회

□ 개 요

- 일 시 : 2021. 7. 20.(화) 13:30 ~ 15:00(90분)
- 장 소 : 경북농업기술원 복숭아연구소(경상북도 청도 소재)
- 참석대상 : 30여명
 - (농 진 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장, 수출농업지원과 직원 등
 - (경상북도) 경북농업기술원 신용습 원장, 복숭아연구소 담당자 등
 - (재배농가) 복숭아연구회 회장(최민용), 재배농가(양장모, 이수진 대표)
- 주요내용 : 인사말씀, 기념촬영, 품종설명 및 사례발표, 시식 등

□ 세부일정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3:30 ~ 13:40	10'	등록	
13:40 ~ 14:00	20'	참석자 인사 및 농가대표 면담	복숭아연구소장실
14:00 ~ 14:20	20'	시범수출 기념식 * 인사말씀 및 기념촬영	담당자
14:20 ~ 14:40	20'	품종 설명 및 재배농가 사례발표	품종담당자 및 재배농가
14:40 ~ 15:00	20'	시식행사 및 식미검정	품종담당자

□ 육성내력

- 교배조합 : 오도로끼(중생종)×일천백봉(조생종)
- 육성기간 : 2000 ~ 2018(8년)
- 육성기관 : 경북농업기술원 복숭아연구소
- 보급 : 2019 ~ 2025년(63,000주)

* 보급내역(누계) : ('20)3,365주, 11.2ha → ('21)8,000주, 27ha

□ 품종 주요특성

- 특성 : 조생종(7/15~7/20), 과즙 풍부, 고당도, 과피 착색 우수, 대과형 백도
 - * 오도로끼(모본) : 중생종, 아삭한 식감, 과피 착색 우수, 대과종
 - * 일천백봉(부본) : 조생종, 쫄득한 식감, 중소과종
 - '20년 농진청 시장테스트 결과(7월 18일)
 - 당도, 과즙, 육질, 향, 식감 등 과실 품질 매우 우수
 - 과실 모양, 색택, 크기 등 외관 특성 매우 우수
- ≫ '홍백'이 일반 복숭아보다 비싸더라도 구매 의향 있음(85%)



과실 모양



착과 모습

- * 홍백은 과실 품질 특성 매우 우수하여, 고급화 판매 전략 적합
- * 일반 복숭아 대비 1.3~1.6배 높은 가격 형성, 재배면적 빠른 속도로 확대

 경상북도	보도자료 【7. 20(화)】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맑은물정책과			
		작성 자	과 장	박 기 완		
			사무관	홍경식	주무관	최동준
		연 락 처	054-880-3584			

경북도, 휴가철 도내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점검 나서

- 9월 17일까지, 300여 곳 야영장 시·군 합동 특별점검 -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9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 이용과 환경 보전을 위해 오수처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내 등록된 야영장 307개소의 오수 무단배출 여부를 비롯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적정한 운영·관리 등을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신고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과 내부청소 이행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도내 야영장 약 170여 곳을 특별 점검하여 7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부과 6건, 개선명령 7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로 가족단위의 야영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이번 점검으로 사업자의 환경관리 의식 제고는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휴가철 야영장의 오수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021.7.20(화)】	담당부서	경북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				
		작 성 자	소 장	허 민 순			
			담 당	류영현	담당자	장명환	
		연 락 처	054-632-1250		C·P		

인삼 씨받기 제때 해야 개갑률 높아

- 인삼농사는 종자 관리부터, 인삼 종자 채종과 개갑장 관리 철저 당부 -

경북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는 인삼 종자의 적기 채종작업과 하계 개갑장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인삼은 5월 초부터 개화하여 수정된 뒤 7월 중순부터 열매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하순이면 채종시기가 되는데 적기 채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자를 너무 일찍 채종하면 종실이 불량하고 늦게 채종하면 개갑작업이 늦어져 개갑률이 낮아진다.

경북에서 인삼종자의 채종 시기는 시군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7월 25일 전, 후가 적합하다. 수확한 열매는 과육을 제거한 후 발아억제 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2~3일간 담가 두었다가 개갑장에 넣는 것이 좋다.

인삼 종자는 열매를 딸 때는 배가 미숙한 상태여서 바로 파종하면 배의 성숙이 서서히 진행돼 약 21개월이 지나야만 발아가 된다.

종자를 모래에 묻고 100여 일 정도 수분관리를 하여 인위적으로 배 성숙을 촉진시키고 종자 껍질이 벌어지게 하는 과정을 개갑이라고 한다. 개갑작업의 최적온도는 15~20℃로 기온이 높은 7월 하순에서 9월 중순

까지는 1일 2회, 9월 중순 이후는 1일 1회, 10월 중순 이후는 2~3일에 1회씩 지하수를 이용하여 관수하여 온도 유지와 개갑처리를 해준다.

신용습 경북농업기술원장은 “모든 농사의 근본은 종자에서 시작되는 것인 만큼 인삼종자의 적기 채종과 개갑작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올 여름은 세계적인 이상 기후의 요인으로 매우 강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농작물 피해를 철저히 대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7. 20(화)】	담당부서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작성 자	과 장	민 문 기			
			팀 장	이달향	경 위	윤중형	
		연 락 처	054-880-7052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업무 지시 의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대책 수립 지시 -

경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에서는 7월 19일 오전 11:00 경북 포항시 산림조합 숲마을에서 7월 정기회의를 열고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제1호 지시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지시사항은 최근 연이어 포항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매매 강요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과 근절 대책 마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예방대책 수립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근본적 보호 대책 및 제도적 정비 등이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 5월 출범 시 밝힌 바와 같이 도민의 일상과 함께 하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접 자치경찰 사무 전반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의 건’, ‘2021년 8월 및 9월 정기회의 개최일 결정의 건’ 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 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는 데 주력하겠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소년 성매매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